소규모사업장 산업보건 국제심포지움 참가기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우 극 현

대구에서 6시 9분발 KTX를 타고 광명역에 도착하여 서둘러 리무진버스에 올랐다. 혹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빨라야 1시간 반이나 걸린다는 운전기사의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택시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금년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소규모사업장 산업보건 국제심포지움에 조규상 회장님의 배려로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 전문위원들이 처음으로 대거(?) 참석하였다. 일행은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 전문위원장인 연세대 노재훈 교수, 가톨릭대 김현욱 교수, 한양대 정문희 교수, 필자와 이명숙 국장, 그리고 연세대 전공의 3년차인 고동희 선생 이렇게 6명이었다.

요즘은 테러 비상이라 검색절차가 많이 걸린단다. 그래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출국수속을 밟고 있는데 60대 후반의 노부부가 미국에 있는 막내딸의 초청으로 난생 처음 해외 나들이를 떠나면서 긴장된 모습으로 몇 번씩이나 탑승방법을 물어 보길래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면서 '아들 둔 부모는 리어카 타고 딸 둔 부모는 비행기 탄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흘러 나왔다.

약 1시간 40분 후에 일본 나고야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안내된 대로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고 예약된 CYPR-ESS GARDEN 호텔에 무사히 도착했다. 날씨가 추워진다는 일기예보에 때 이른 겨울옷을 껴입어 모두들 비지땀을 흘리는 모습들이 가관이었다. 잠시 쉬었다가 나고야 국제회의장에 도착했는데 그 규모가 정말 대단하였다.

1시간 이상 일찍 도착하여 여기저기를 둘러보기도 하고 집으로 전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Get together party에 참석하니 이번 국제심포지움의 조직위원장인 나고야시 대학의 이타니 교수와 닷찌 교수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무런 멘트 없이 참가자들이 가볍게 서로 인사를 나누며 술도 한잔씩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뜨기 시작했다. 더구나 Dr. Kogi, 히사나가 선생, 태국의 마히돌대 사라 교수, 필리핀의 바티노 등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만났다. 특히 핀란드에서 온 International Commis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ICOH)의 회장인 Dr. Rantanen을 약 10년 전에 일본에서 만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의 산업보건을 관할 보건소가 담당한다는 사실을 듣고 구미의 보건관리 모델을 소개하면서 핀란드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다시 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게 느껴졌다. 약 2시간 정도의 교제를 마치고 약 20분 정도 걸어서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로 돌아왔다.

그냥 잠자리에 들기가 적적하여 호텔 바로 앞에 있는 白龍이라는 일본주점에 잠시 들렀는데

주인 아주머니와 그의 딸, 그리고 딸의 친구로부터 욘사마에 대한 관심과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류열풍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고야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우리 각자는 좁은 호텔방으로 돌아와 이런 저런 상념을 달래며 쌓인 피로와 함께 꿈속으로 나가 떨어졌다.

둘째날(13일)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걸어서 회의장에 도착하니 며칠 전 Dr. Khai와 함께 구미를 방문했던 Dr. Kawakami(태국의 마닐라에 있는 ILO regional officer)와 Mekong Delta 2003에서 만났던 Nakao상과 Hanoi conference에서 만났던 Ito상 등 많은 반가운 얼굴들이 인사를 청했다. 개최국인 일본, 그리고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는 물론 핀란드의 J. Rantanen 회장과 미국의 NIOSH staff인 Dr. R. Malkin 을 비롯하여 스웨덴, 캐나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루마니아 등 20여개국으로부터 약 170명이 참석한, 생각보다는 국제적인 성격의 심포지움이었다. 소규모 또는 Informal sector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비율이 개발도상국의 경우 90 %를 상회하고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50 % 이상을 차지할 뿐 아니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그들의 산업보건 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산업보건분야 전문가들의 세계적인 관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 생각되었다.

발표가 포스터 세션을 제외하고 모두 한곳에서 진행되다 보니 비록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심포지움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두 곳에서라도 진행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라는 노래 가사처럼 농땡이라도 좀 칠 수 있으련만…. 오후 시간에 정문희 교수가 한국의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김현욱 교수가 정성적 리스크 평가방법에 의한 소규모 사업장 평가에 대해 발표를 했다. 노재훈 교수의 제자이며,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동경대 포닥과정에 있는 배문주 선생이 심포지움에 함께 동참하였다.

6시가 넘어서야 발표가 끝나고 바로 Welcome Party가 열렸는데 Noh Performance라는 창과 함께 장구, 북, 대금 등 우리의 전통악기와 비슷하지만 그들의 취향에 맞게 다듬어 그들대로의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다.

세째날(14일)은 노재훈 교수가 한국에서의 중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제도에 대한 특강을 했고 본인은 구미에서 3차례 시범으로 실시한 PAOAP웍샵의 결과를 중심으로 PAOAP와 근골격계질환 예방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고동희 선생은 소규모사업장에서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적용 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점심식사 후 늦은 시간까지 계속 심포지움에 참석했다. 그것도 황금 같은 주말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일찍이 없었는데…. 본 심포지움은 이것으로 끝인데 다음날은 모든 참가자들이 주제와 연관된 그룹토의 시간과 공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란다.

참석 여부를 두고 진지하게(?) 그룹토의를 거친 후 강의 스케쥴로 일행보다 먼저 돌아올 김현욱 교수와 고동희 선생은 배문주 박사의 안내로 나고야성과 사까에로역 부근을 구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4명은 그룹토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하였다. 발표들이 다 끝난 때문인지 저녁시간에는 모두들 홀가분한 기분으로 나고야역에 있는 백화점 건물의 51층이나 되는 타워에 올라가 야경을 구경하고 늦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다. 조직위원회 모임에 다녀온 노교수와 함께 2차로 가까운 곳에 있는 주점에 가서 밤이 늦도록 앞으로의 계획들을 논의하면서 그렇게

또 하룻밤이 지나갔다.

다음날(15일) 그룹토의는 가와까미가 진행을 맡았는데 우선 전날 발표했던 좋은 사례들을 25장 정도 골라 확대 복사하여 전시해 놓고 참가자 개개인에게 스티커를 3장씩 나누어 준 후 각 사진에 붙은 스티커 숫자를 세어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개선사례 "TOP 3"를 선정하는 방법이 재미있게 느껴졌다. 그리고 난 후 또 참가자 각 개인에게 쪽지를 3장씩 나누어 주고,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소규모사업장들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겠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씩 핵심적인 내용을 제안하게 하여 그 내용들을 비슷한 내용끼리 분류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5년 동안 이 분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성과 3가지와 향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Future Actions 3가지에 대해 그룹토의를 하게 한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필자는 제3그룹의 발표자로 선정되어 짧은 영어솜씨지만 젖 먹던 힘까지 동원하여 그런대로 맡은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점심식사 후 나고야성에 다녀온 김교수팀과 함께 노리다께 공장을 방문하였다. Grinding Wheel을 생산하는 공정을 둘러보는데 작업환경이 우리보다 크게 나아보이지 않았지만 다들 철저하게 그리고 열심히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 노리다께 그룹의 전 직원이 약 6,000명인데 지난해 총 매출액이 약 1조 2,000억원이 된단다. 전 그룹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전시하는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노리다께' 라면 우리가 평소에 유명한 찻잔이나 접시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세라믹 제품은 물론 반도체 웨이퍼 등 최첨단 소재까지 생산하는 것을 보고 시대에 맞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공장방문을 마치고 저녁 6시부터 나고야시 대학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번 국제 심포지움이 소규모사업장과 Informal sector의 산업보건문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동 관심사로 인식되게 하였으며 공식적으로 나고야 선언문을 채택하고 ICOH 내에 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번 나고야 국제 심포지움을 성황리에 개최하는데 주역을 맡은 이타니 교수를 의장으로 선임하는 일에 동의를 구하고 이번에 참석한 이 분야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 새로운 Committee의 위원이 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필자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산부족으로 저녁식사는 각자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가와까미 선생이 코기선생님과 태국의 사라, 필리핀의 바티노와 같이 한국팀 일행을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 근처 일본식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호텔에 돌아오면서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을 아쉬워하며 우리 팀끼리 한차례 더 간단하게 생맥주잔을 기울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16일) 김 교수는 먼저 나고야 공항으로 떠나고 나머지 일행들은 나고야성 구경을 갔다. 날씨도 너무 좋고 국화전시회까지 열려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듯 했고, 특히 분재 형태로 잘 가꾸어진 국화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다. 오후 시간에 호텔을 출발하여 나고야 공항을 통해 인천으로 돌아왔다. 앞으로 보건관리대행제도와 Clean 3D사업에 이번 국제 심포지움의 화두인 Participatory Approach를 어떻게 잘 접목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숙제를 한보따리 받아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4박 5일간의 나고야 대장정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제16차 중한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 안내

산업보건 분야의 학술적, 인적 교류와 상호친선을 도모하는 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2005년 16회를 맞이하여 중국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초록제출(마감 : 2005년 4월 15일)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날　　짜 : 2005년 6월 2일-4일
- 장　　소 : 중국 大連市, Furama Hotel Dalian
- 참 가 비 : 일반참가자 150 USD; 동반자 100 USD; 학생 75 USD
- 초록접수

- 원고마감 : 2005년 4월 15일
- 제 출 처 : 대한산업보건협회 기획홍보부 남해영 (pr@kiha21.or.kr Tel.(02)586-2412-4)
- 문　　의 : 가톨릭의대 이세훈 교수(ashlee@catholic.ac.kr Tel.(02)590-1236)
- Workshop 주제 : Musculoskeletal Disorders
- Symposium 주제 : Active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from Prevention to Promotion

보건관리대행사업의 새로운 모델 구축방안 세미나 및 보건관리대행사례 발표회

- 일 시 : 2004년 12월 10일(금) 13:00 ~17:30
- 장 소 :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 대회의실(5층)
- 주 최 :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

13:00 - 13:30　등록, 개회사

13:30 - 14:00　제 1 부　보건관리대행사업의 새로운 모델 구축방안 세미나

- 중·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지원사업 추진방향
- 보건관리대행사업의 새로운 모델 구축방안/우극현(순천향대 구미병원)

15:00 - 17:10　제 2 부　보건관리대행 사례 발표회

- 유선전화 및 통신업종의 사이버 상담사례
- 종합병원의 보건관리사례
- 건설업 보건관리사례
- 근골격계작업장 개선사례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성과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PAOAP 적용사례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보건지도사례

17:10 - 17:30

- 공지 -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 개정 현황, 2005 보건관리대행수수료 관련